

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0월 14일(월)

장 소 경기도청 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금일 감사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참고인은 앞서 말씀드린 김경일 파주시 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이요?

그러면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유감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좀 심한 표현을 쓰면 떴다방 같은 국정감사에 정말 좌절감을 느낍니다.

민주주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증인·참고인을 7일 전에 부르는 거는 증인과 참고인의 인권과 준비할 시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힘과 다른 당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저희 위원들의 인권과 준비할 시간과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파주시장님 같은 경우에 민주당 출신입니다. 들키로는 오후 3시까지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거야말로 민주당 출신인 파주시장이, 배구로 치면 토스를

하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스파이크를 해서 우리 국감장을 초토화시킨다는 건데 저희한테 블로킹할 시간은 주셔야지요. 이것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물풍선이라든지 대남방송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것을 원인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지난번에 행안위 국감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밝힌 바 있고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이상민 장관이 소음피해 지원이라든지 법령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결론을 냈는데 이렇게 느닷 없이 하루 만에 불러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정말 백안시하는 이런 의사진행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제가 정식으로 다시 건의드립니다. 꼭 하고 싶으시면 종감이 있지 않습니까? 종감을 통해서 하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되고 증인들도 허겁지겁 안 나와도 되고 민주주의라는 절차도 준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위원장님,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거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되고 무인기를 통해서 전단이 뿐려지고 남북 당국자 간에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급한 상황에서는 국회가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참고인을 당일 날 채택해서 진행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이 벌어진다면 그 후과는 온전히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져야 합니다.

평화에는 여야가 없고 안보와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정파적으로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소재가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긴장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접경지역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에게, 특히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를 맞이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들어보고 해소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는 잘 감안해서 오늘 참고인 채택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정도로 하시지요. 두 분 하셨으니까…… 아마 국정감사, 경기도정을 다 살펴보기에도 참 벼겁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 안건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에 지금 1년에 걸쳐서 민간의 비군사적인 교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들어서 당국자들이 직접 참전한, 지금 준군사적인 교전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대한민국 국민, 특히 경기도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어제 그제 남북 간에 또 변화된 정세가 있었고 여기에 따르는 지역민들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참고인을 신청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므로 불가피하게 표결로써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이해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서 참고인 신청 배경과 관련해서 한 30초만 의사진행발언……

○**윤건영 위원** 그쪽에서 하시면 우리가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경기도 국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21인, 찬성 13인, 반대 8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체회의는 잠시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참고인 명단

참고인(1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김경일	파주시장	접경지역 오물풍선 피해 관련 진술 청취	신정훈	10. 14.(월) 경기도

○출석 위원(22인)

김상욱 김성희 김종양 모경종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동만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